

# 소득주도 성장의 이해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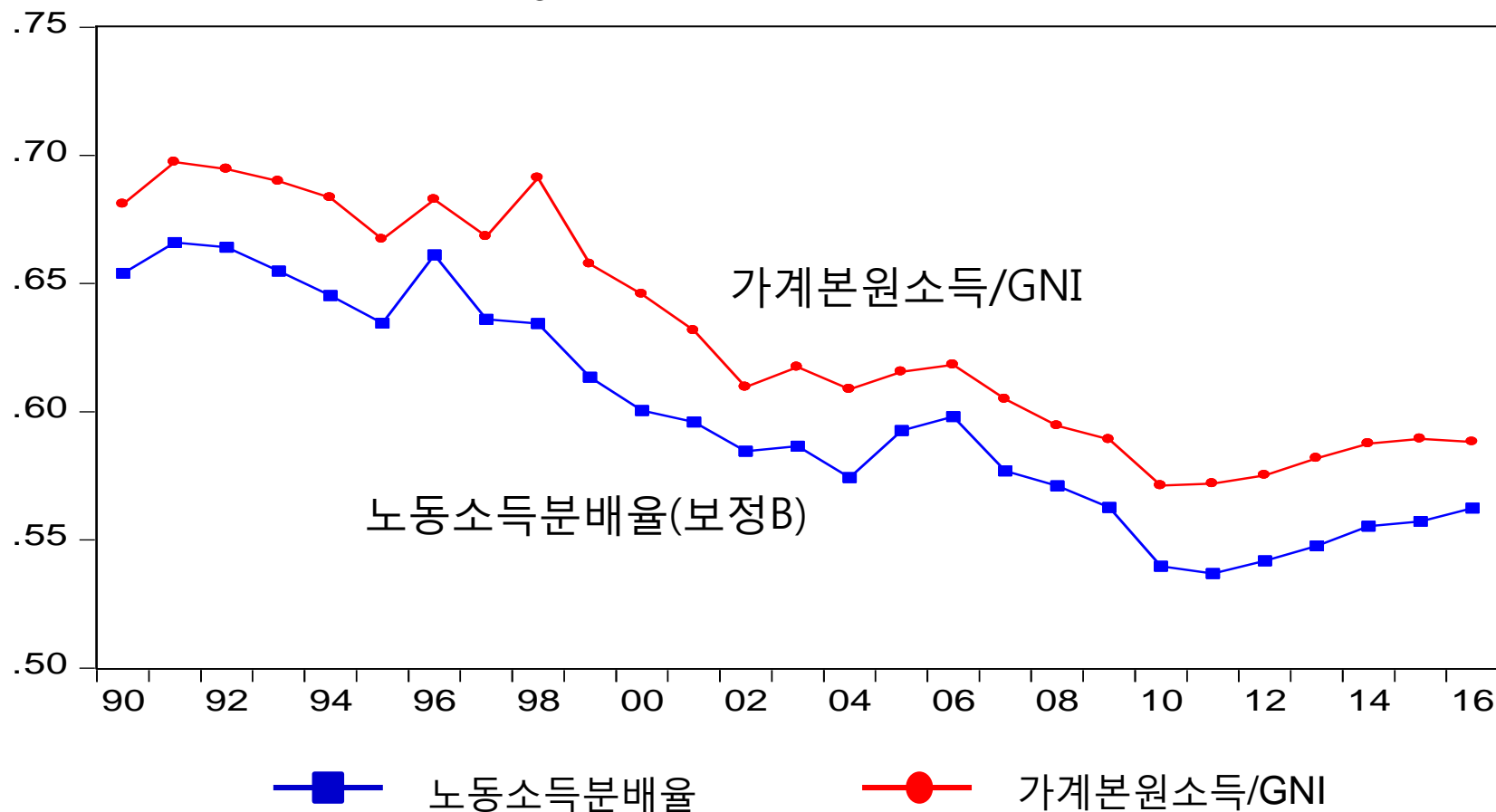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2018. 02. 01.



#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가계소득분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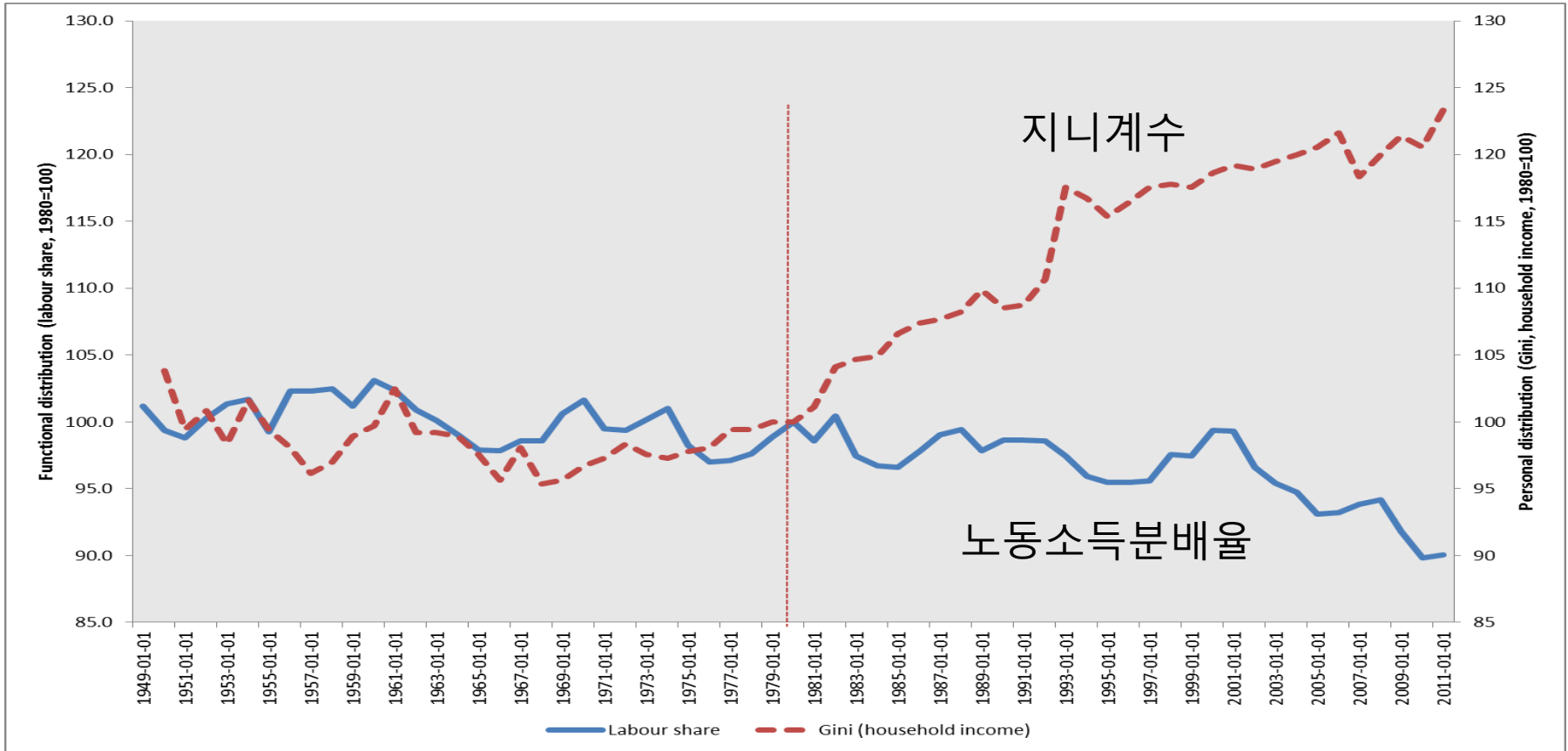


주 1) 노동소득분배율(보정B) = (비용자보수 + OSPUE 보정분) / GVA

주 2) GNI 대비 가계본원소득 비중

# 기능별 분배와 계층별 분배

미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 1949-2012, 1980=기준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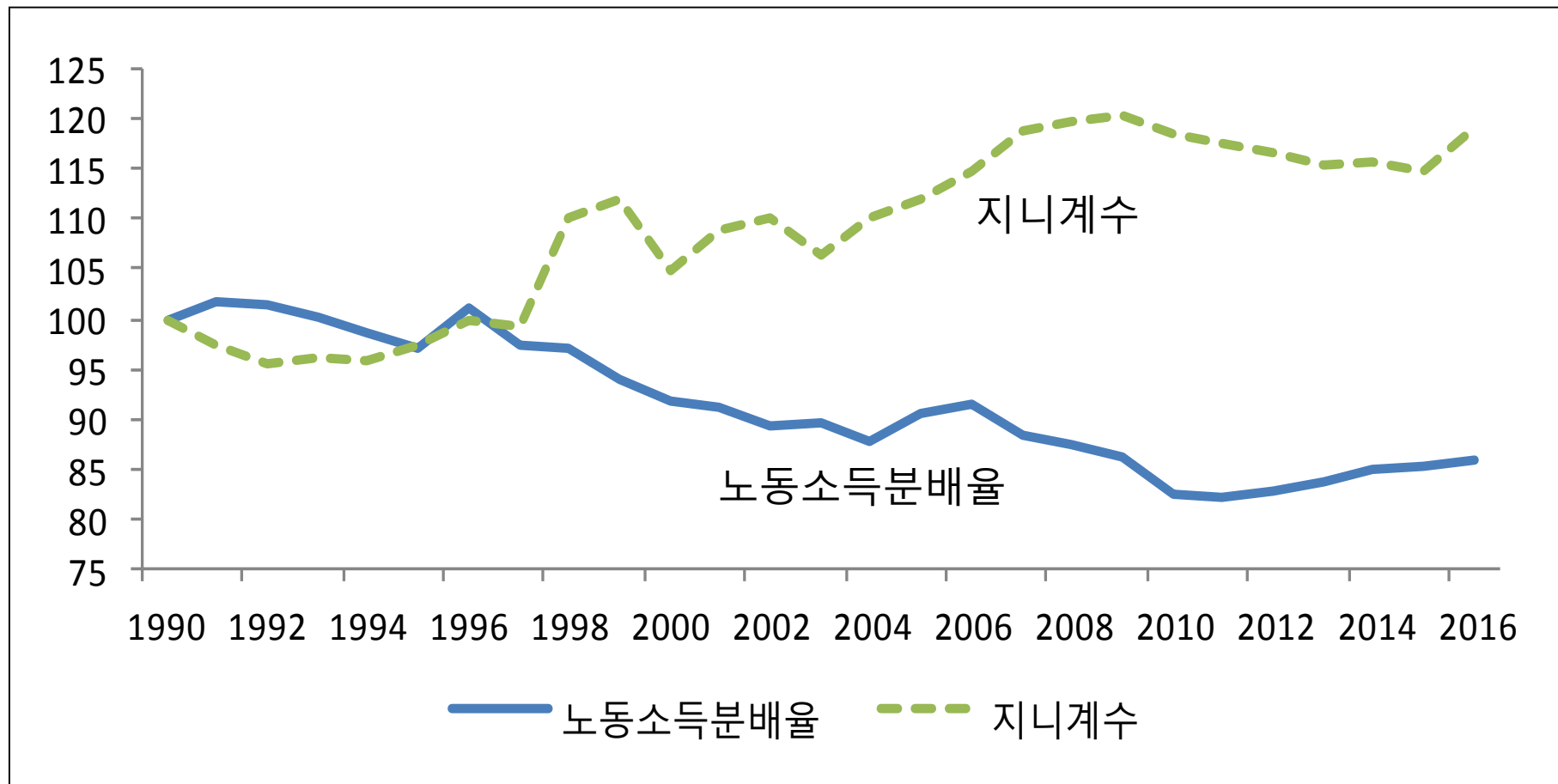


주: 모든 수치는 1980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지표화한 것임. ¼ 분기 통계.

출처: 노동소득분배율은 BLS, Productivity and Costs Tables; 지니계수는 Census, Table F4.

# 기능별 분배와 계층별 분배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 1990-2016, 1990=기준연도



주: 모든 수치는 1990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지표화한 것임. 지니계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득분배지표 변동의 결정요인

## 주요 소득분배지표 변화의 결정요인: 1990~2016년

	노동소득분배율		가계소득/GNI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수	0.097*** (0.014)	0.116*** (0.024)	0.090*** (0.022)	0.078*** (0.021)	0.186*** (0.049)	2.444*** (0.593)
AR(1)	0.892*** (0.031)	0.642*** (0.050)	0.926*** (0.038)	0.733*** (0.045)	0.563*** (0.115)	0.772*** (0.067)
비정규직비율	-0.171*** (0.044)	-	-0.198*** (0.055)	-	-	-
최저임금상승률	0.149*** (0.051)	-	0.104* (0.059)	-	-	-
경제성장률	-	-0.141*** (0.029)	-	-0.279*** (0.040)	-	-
△고용률	-	-	-	-	-0.326*** (0.101)	-12.248*** (2.396)
제조업 취업자비중	-	0.517*** (0.083)	-	0.513*** (0.072)	-3.520*** (0.084)	-6.278*** (1.524)
$R^2$	0.937	0.947	0.935	0.970	0.941	0.957

주: 괄호안은 Newey-West 표준오차.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

# 노동소득분배율과 총수요: 소비를 중심으로

$$Y = C(Y, LS, \lambda_C) + I(Y, LS, \lambda_I) + G(Y, \lambda_G) + NX(Y, LS, \lambda_{NX})$$

## 소비증가율의 결정요인: 1985-2016년

	I	II	III	IV
소비증가율(-1)	0.051 (0.122)	-0.144 (0.172)	0.063 (0.242)	0.059 (0.145)
노동소득분배율(-1)	0.315*** (0.062)	0.235** (0.113)	-	0.227** (0.089)
실질주가상승률(-1)	0.062** (0.031)	-	0.053** (0.02)	0.052** (0.023)
실질실효환율	-	0.172 (0.108)	0.180*** (0.064)	0.130 (0.081)
기대수명	-0.193*** (0.042)	-0.359*** (0.089)	-0.200** (0.082)	-0.301*** (0.071)
$R^2$	0.459	0.413	0.461	0.539

괄호 안은 Newey-West 표준오차. \*, \*\*, \*\*\*: 각각 1%, 5%, 10%에서 유의함.

변수의 정의 및 출처 실질소비증가율과 노동소득분배율; 국민계정. 기대수명: 통계청.

실질주가상승률=KOSPI 상승률-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실효환율; BIS, 2010년=100, 값의 상승은 원화가치 상승을 의미.

# 총수요와 생산성

- **칼도어-버튼 효과**: 성장은 누적적 인과관계(cumulative causation)의 산물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그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증가

## 한국의 자본산출계수(K/Y): 1990-2016년

1인당소득증가율:  $g_{Y/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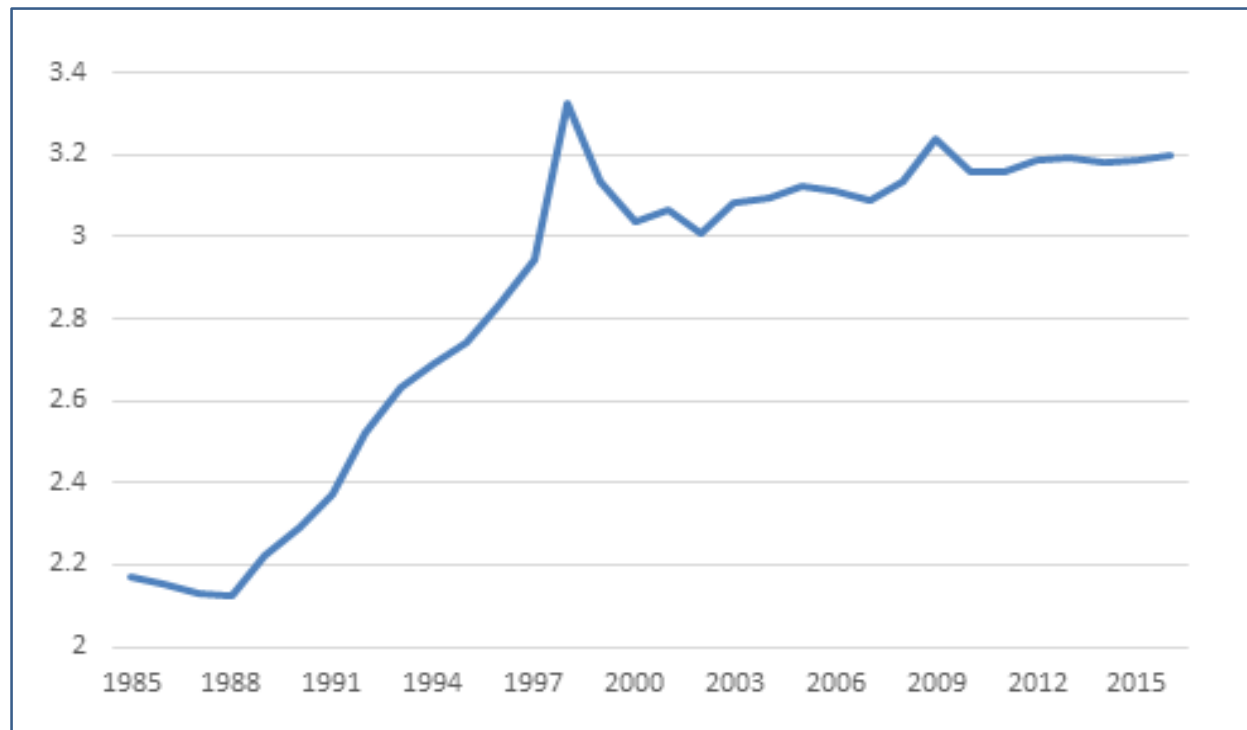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g_Y$

1985~2016년

$$g_{Y/L} = 0.07 + 0.69 g_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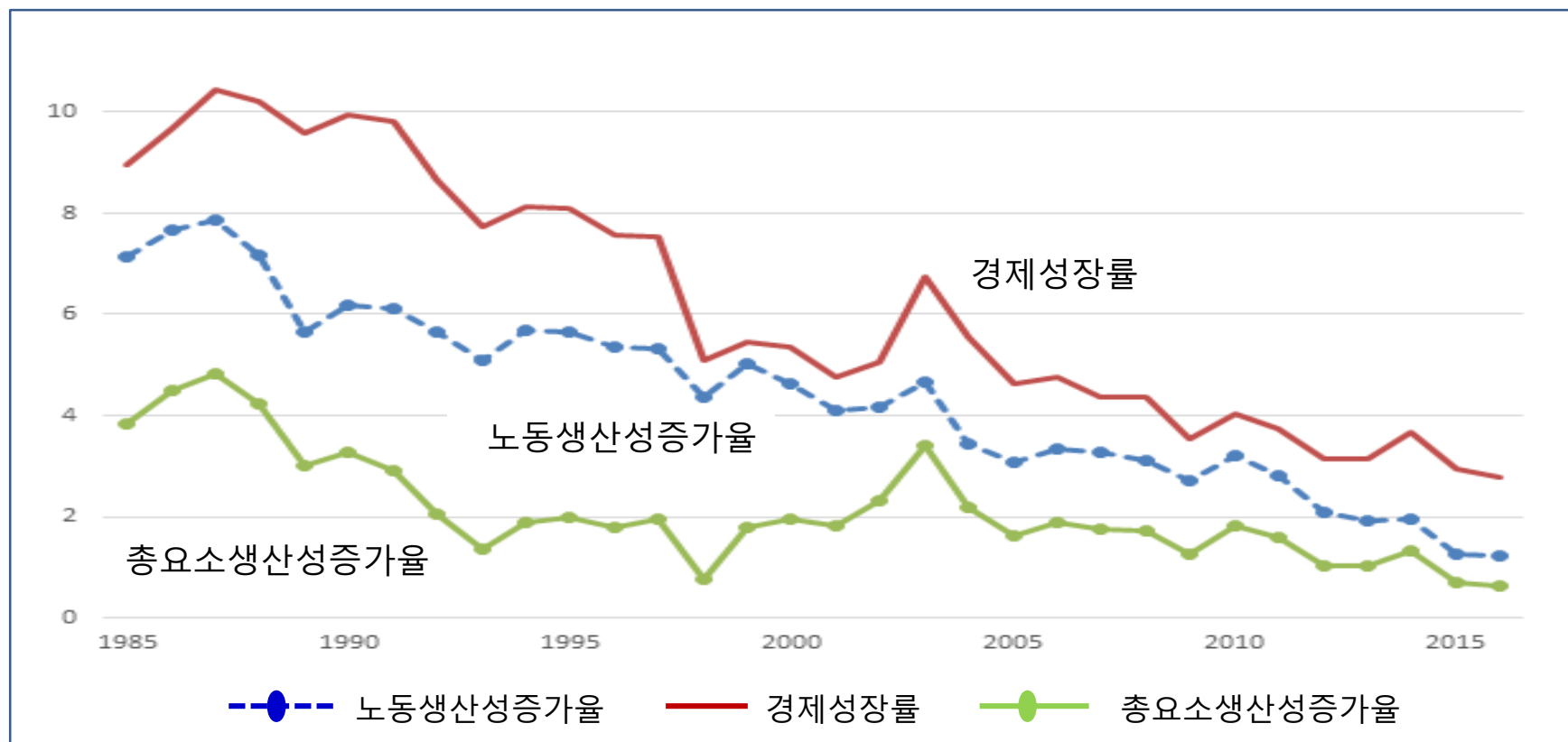
(0.45) (0.07)

$$R^2 = 0.90$$



자본은 지식생산물을 포함한 실질고정자산이며 산출은 실질GDP

##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가율; 1985~2016년, 5년 이동평균, %



경제성장,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1985~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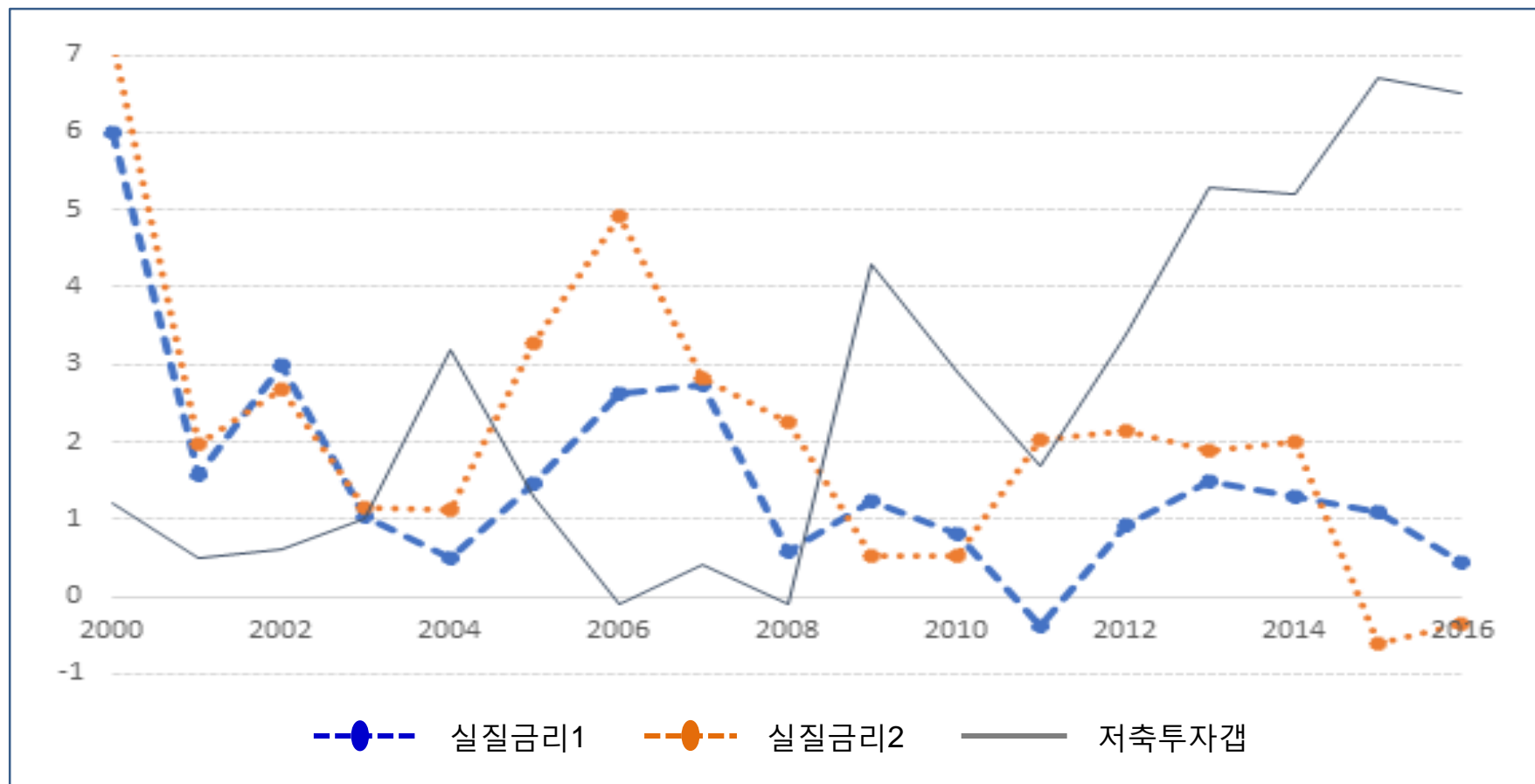
$g_{Y/L} \rightarrow g_{GDP}$	0.930 (0.407)	$g_A \rightarrow g_{GDP}$	1.157 (0.330)
$g_{GDP} \rightarrow g_{Y/L}$	3.176 (0.059)	$g_{GDP} \rightarrow g_A$	3.857 (0.034)

각 변수는 5년 이동평균 값. 시차 2 적용, 숫자는  $F$ -값( $p$ -값)임



# 소득주도성장의 여건: 수요측면

## 실질금리와 저축투자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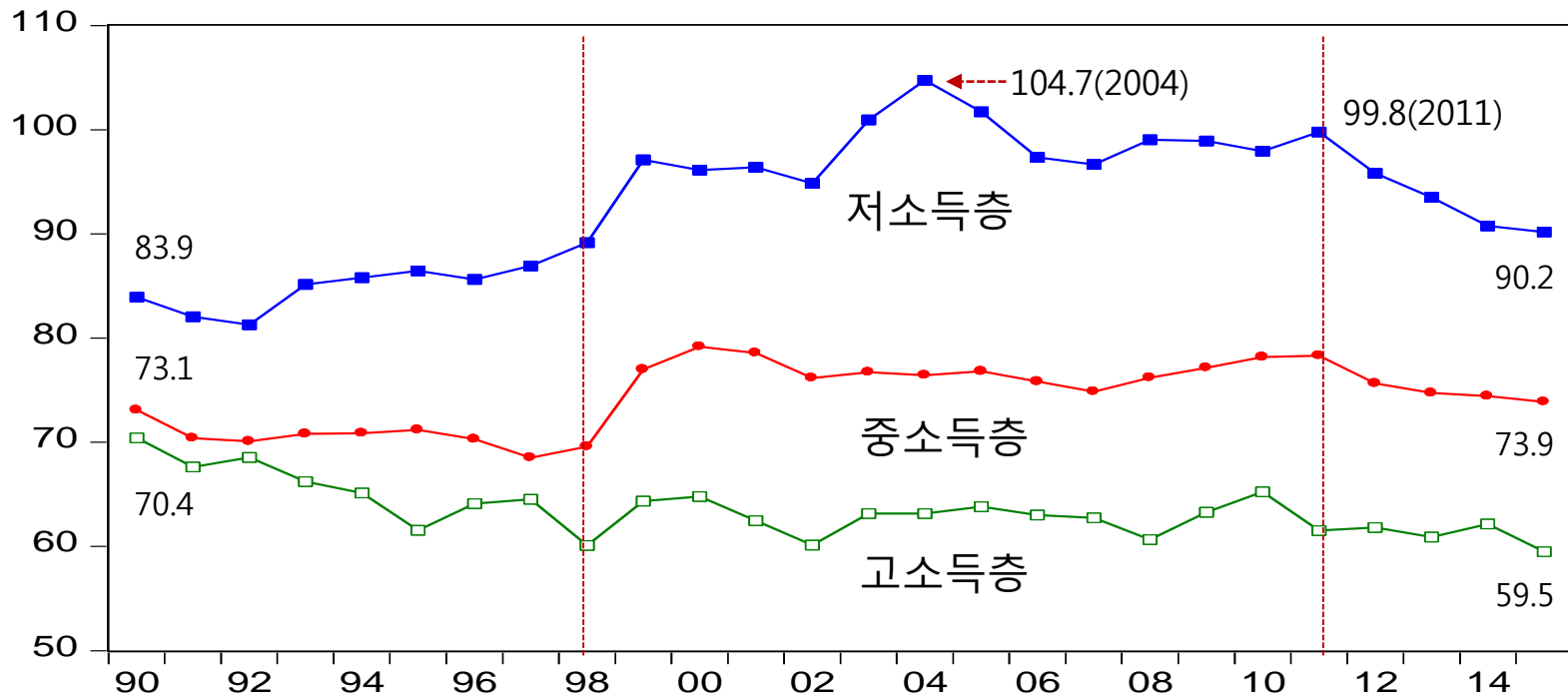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실질금리1: 3년 만기 국채수익률 -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금리2: 3년 만기 국채수익률 -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저축투자갭: GDP 대비 총저축률 - 총투자율(%)

# 소득주도성장의 여건: 소비와 투자

소득 계층별 평균소비성향: 근로자 가구 기준, %



출처: 주상영(201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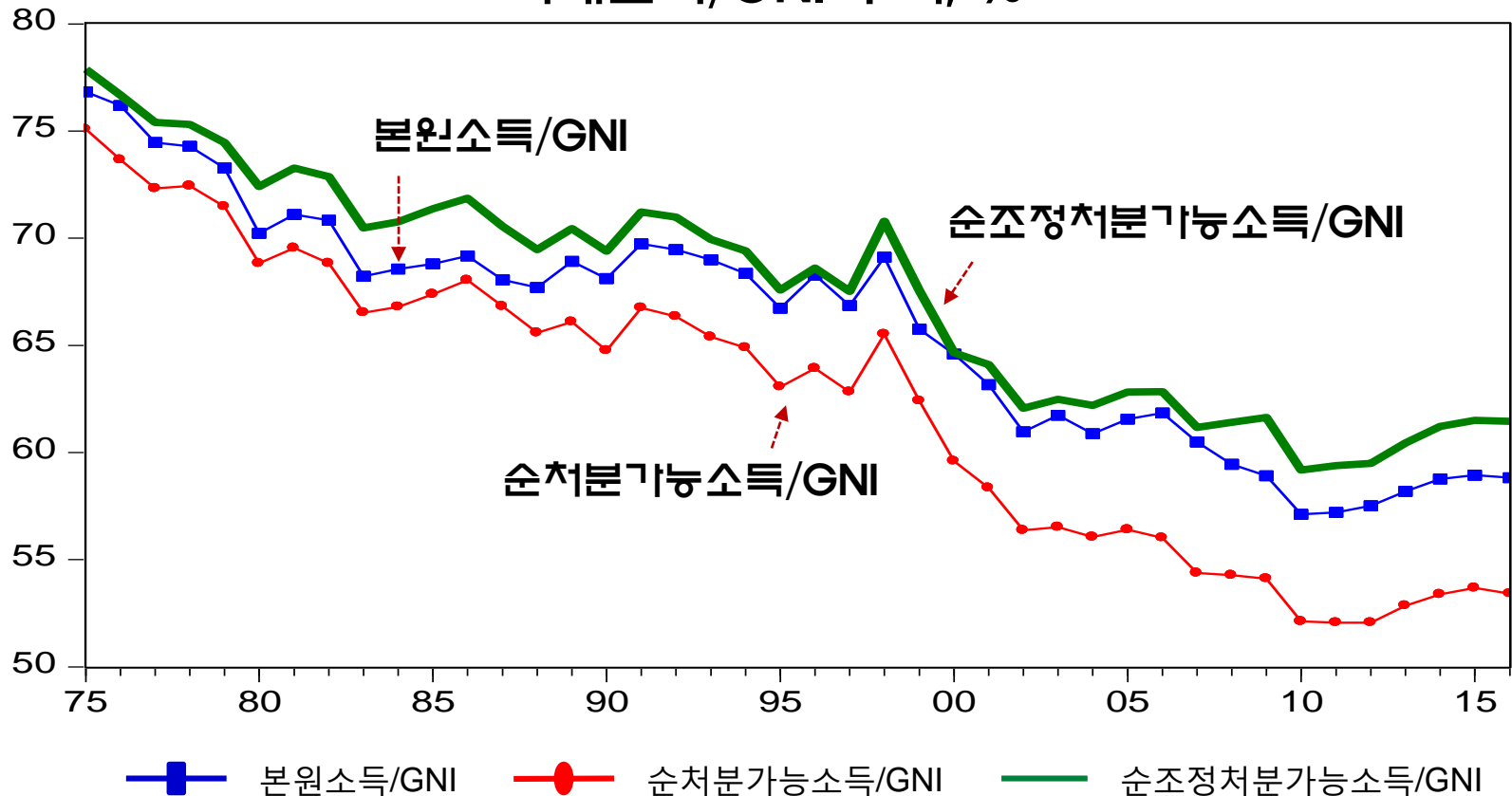
1) 저소득층(1분위~2분위), 중소득층(3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

2) 도시 2인 이상(근로자 가구 기준), 1990~2015년

투자: 선진국 수준의 자본산출계수 + 자본재가격의 하락 + GDP 대비 투자율 30%  
⇒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는 소비 부족

# 소득주도성장의 여건: 분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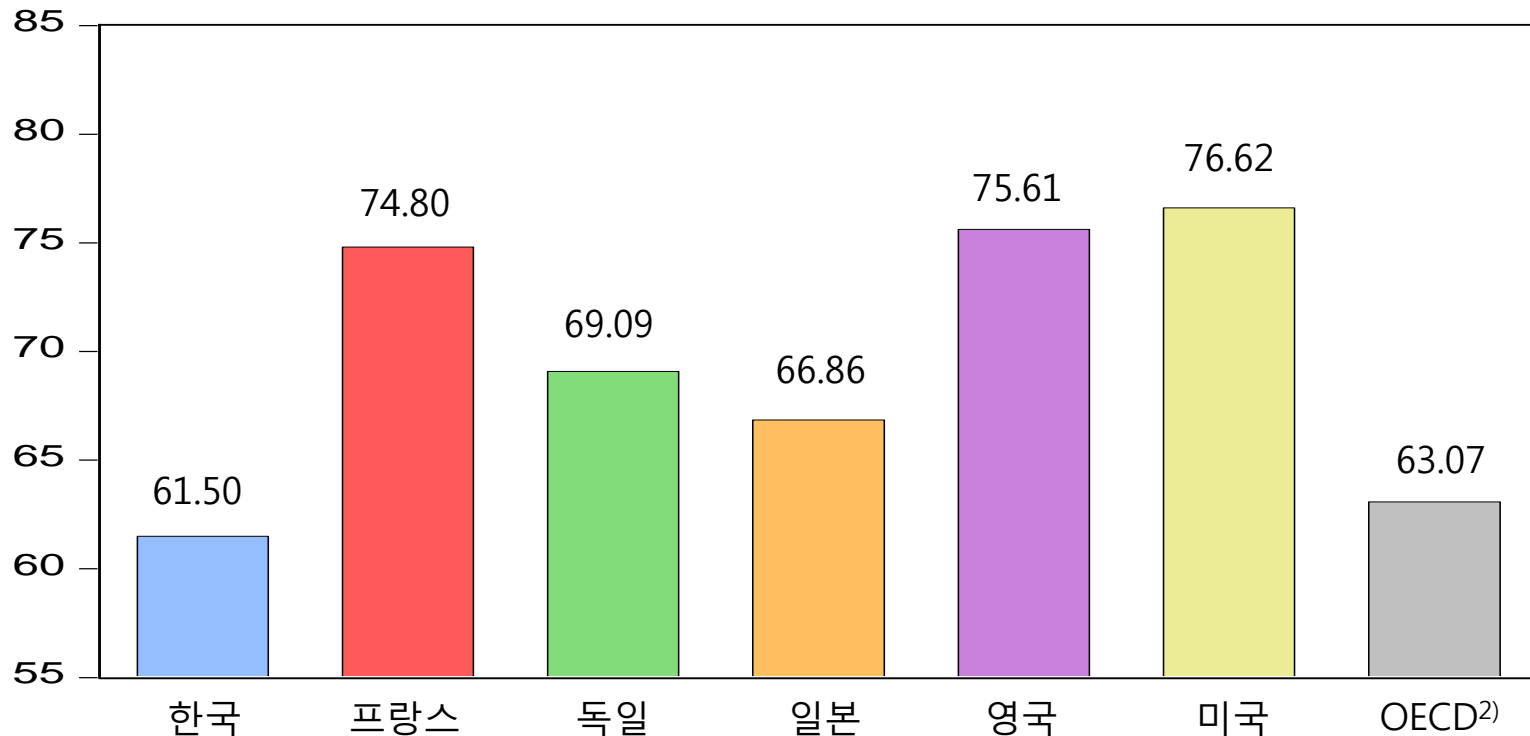
가계소득/GNI 추이, %



- 1) 가계본원소득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생산 및 수입세 + 순재산소득
- 2) 가계순처분가능소득 = 가계본원소득 + 순이전소득(소득/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 등)
- 3) 가계순조정처분가능소득 = 가계순처분가능소득 + 사회적현물이전
- 4) 가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를 포함함, 기간 : 1975~2016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소득주도성장의 여건: 분배측면

## 주요국의 가계순조정처분가능소득/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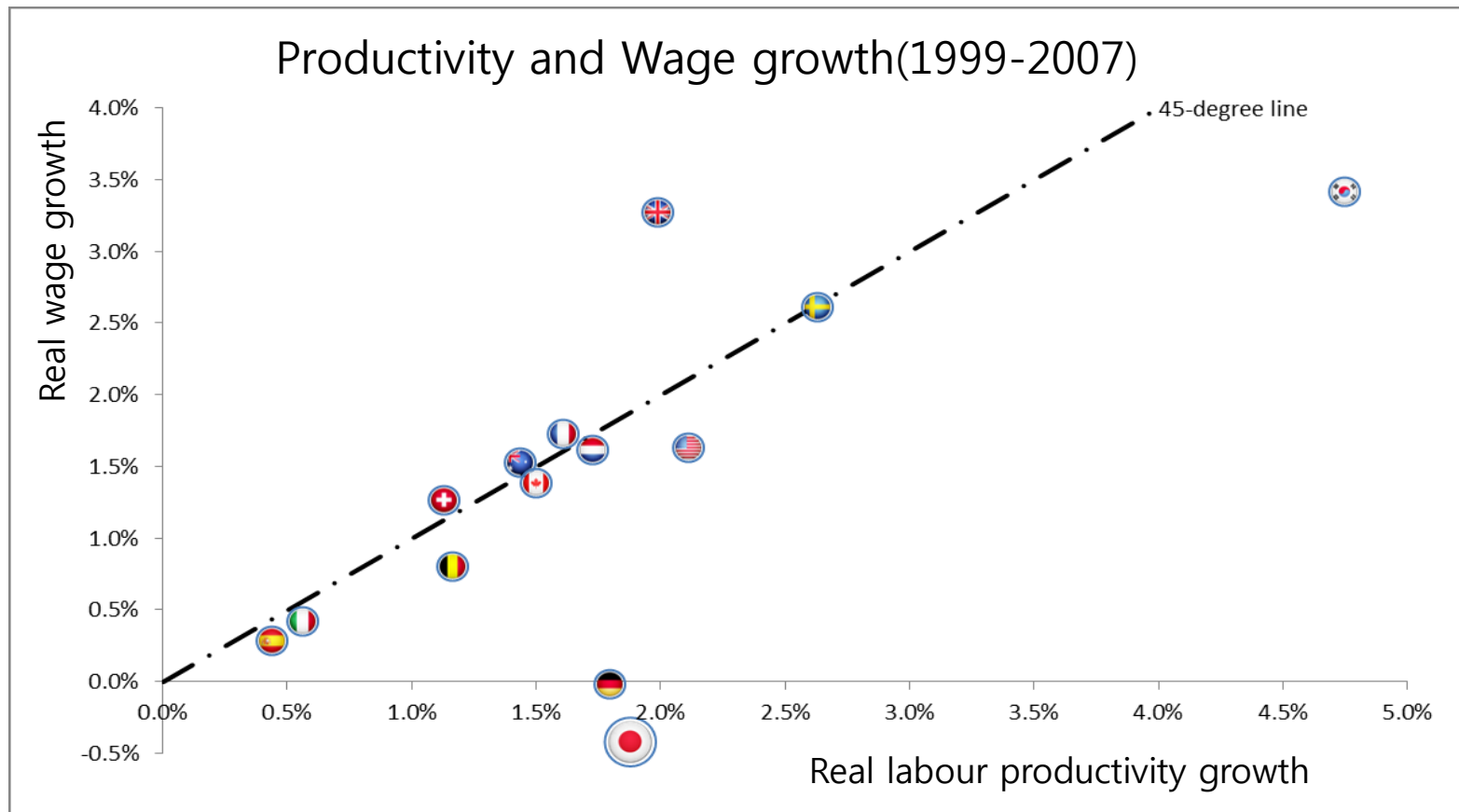
1) 주요국의 GNI 대비 가계순조정처분가능소득은 2015년 기준임

2) OECD 21개국 평균(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자료: OECD. Stat. 「National Accounts」

# 소득주도성장의 여건: 분배측면

## 주요국의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1997-2007



출처: Porcellacchia(2016)

# 소득주도성장의 여건: 공급측면

## KDI의 경제성장을 장기 전망

연도	경제성장률		노동의 기여분		자본의 기여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991~2000	6.0	6.7	0.9	1.0	3.2	3.9	1.8	1.9
2001~2010	4.0	4.3	0.5	0.7	2.0	2.0	1.5	1.6
2011~2020	2.6	3.0	0.2	0.7	1.2	1.1	1.2	1.2
<b>2021~2030</b>	<b>1.8</b>	2.2	-0.4	-0.1	0.8	0.9	<b>1.4</b>	1.4
<b>2031~2040</b>	<b>1.2</b>	-	-0.6	-	0.5	-	<b>1.3</b>	-
<b>2041~2050</b>	<b>1.2</b>	-	-0.6	-	0.4	-	<b>1.3</b>	-
<b>2051~2060</b>	<b>1.1</b>	-	-0.7	-	0.5	-	<b>1.3</b>	-

자료: Kwon(2017), 조동철 외(2014)

해당 변수의 왼 칸과 오른 칸은 각각 Kwon(2017)과 조동철 외(2014)의 모형에 의한 예측치

## 요약

- (1)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을 위시한 소득분배지표가 모두 악화되었으며, 여기에는 비정규직비율, 최저임금 등 노동관련 제도변수와 경기 및 고용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는 주로 소비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준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투자와 순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거나 미약하다.
- (3) 공급측면, 특히 생산성의 변화는 수요측면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수요의 증가 또는 감소가 그 자체로 생산성의 증가 또는 감소를 유발한다. 생산성과 수요는 명확히 분리되지 않으며,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총요소생산성마저 자연스럽게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 분배악화 + 인구감소 ⇒ 장기침체의 가능성**

# 한국경제 실태에 비준 소득주도 성장론의 재정의

---

- 분배의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정책

‘구조적’ : 단기 안정화정책의 범주를 넘어서는 제도의 장착

- 수요주도의 중기 성장(demand-led medium run growth)

\* 공급측면의 구조개혁 정책만으로는 부족



# 소득주도 성장의 과제

- 최저임금 인상 :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의 프레임??
  - 관대한 실업보험 + 근로장려세제 확대
  - 자본소득 및 기업소득의 비대칭적 상승세를 조절
    - 기업소득의 환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 이자, 배당, 자본이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상향
    - 지나치게 높은 피케티의 부/소득비율
      - ⇒ 부동산, 특히 토지 보유세 인상
  - 획기적 인구 대책
- \* 일자리 창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에 대한 논의는 생략

# 나가며

---

케인스: "... 인구의 감소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인구가 정체된 상태에서는 보다 평등한 소득분배를 유도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한센(A. Hansen): 확장 재정으로 장기침체 예방. 단,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지하지 않음

마글린(S. Marglin): "... wage-led growth is not a panacea, it is an appropriate prescription for recession.

## 〈부록〉

1차 분배와 2차 분배?? 동시에 추진해야

**지니계수 개선율의 결정요인: 1990~2016년**

	I	II	III	IV	V
상수	-0.417 (0.644)	-0.684 (0.668)	-0.469* (0.252)	-0.214 (0.244)	-0.525** (0.232)
지니계수 개선율(-1)	-	-	0.778*** (0.080)	1.092*** (0.046)	0.799*** (0.079)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1.051*** (0.105)	1.084*** (0.106)	0.334*** (0.065)		0.321*** (0.066)
△조세부담률	-	0.309 (0.215)	-	0.439** (0.214)	0.413** (0.196)
$R^2$	0.894	0.905	0.965	0.962	0.972

괄호 안은 Newey-West 표준오차. \*, \*\*, \*\*\*: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